

美 117대 의회 개원...“역대 최악 분열”

6일 대선결과 인증 합동회의

바이든 당선 놓고 힘대결 예상

상원 다수당 조지아주 투표서 결정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재선출

미국의 향후 2년간 입법을 책임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제117대 연방 의회가 3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지난해 11·3 대선과 함께 치른 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은 이날 정오 소집된 의회에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와 맞물린 지난 2년간의 116대 의회에서 대립해온 공화당과 민주당은 117대 의회에서도 출몰 직후부터 세 대결에 나선다. 의회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 브록스 하원의원이 이의 제기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고,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도 동참을 선언했다. 중진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합동회의 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3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를 반영한 형식적 절차인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대선 결과와 일치하는 306명 대 232명으로 이겼다. 최종 절차인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 결과를 인정하고 당선인을 발표한다. 이때 상·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거쳐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에서 제외할지를 표결로 정한다. 개표 무효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제117대 연방의회 개원식에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하원의원들이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주재 아래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공화당 일부의 반대에도 이의 제기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도 이의 제기에 부정적이다. 밋 롬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을 포함한 10명의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0년 선거는 끝났다”며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17대 의회는 상·하원 주도권을 놓고 양당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하원에서 민주당은 116대 의회 때 공화당에 30석 넘게 우위를 보였지만, 새 의회에선 222석 대 211석으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전체 435석 중 1석은 미정이고 1석은 공화당 당선자가 최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져 공석이다.

하원은 의장 선출 투표에서 지난 2년간 의장을 지낸 넨시 펠로시를 하원의장으로 다시 뽑았다. 그는 216표를 얻어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209표)를 근소하게 앞섰다. 펠로시 의장은 20일 출범하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기에 맞춰 2년간 하원을 이끈다.

상원도 공화당이 주도해왔지만, 117대 의회에선 공화 50석, 민주 48석을 확보한 상태로 조지아 주의 2석 결선투표가 남아있다. 5일 열린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한 곳만 이겨도 다수당을 지킨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지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복 입고 취임선서한 한국계 미 하원의원 ‘순자’ 스트릭랜드

붉은 저고리·푸른색 치마 차림

의회에 ‘한국계 의원’ 정체성 각인

한국계 의원 4명 연방 하원 입성

미국의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58·한국명 순자)가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선서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 취임·개원식에서는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은 여성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스트릭랜드 의원이다. 양당 차림의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한복 차림의 스트릭랜드 의원이 단연 눈에 띄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주재로 동료 의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연방 하원의원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한복 차림으로 동료 의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같은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이자 재선인 앤디 김 하원의원과 팔꿈치 인사를 하기도 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의 ‘한복 취임’은 한국계 인사의 미 연방의회 진출을 동료 의원들

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제10 선거구에서 승리한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씨와 미군인 흑인 아버지 윌리 스트릭랜드 사이에서 196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을 거쳐 시장에 당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했다. 타코마 시장으로서의 첫 동양계이자 첫 흑인 여성이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하원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진출에 성공한 한국계는 민주당 소속인 스트릭랜드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말고도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 스틸(조선·캘리포니아주)과 영 김(조선·캘리포니아주)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한인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20일 대통령 취임식...규모 최대한 축소

가상 퍼레이드에 대부분 온라인 대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미국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4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통령 취임식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취임식 참석자를 줄이기 위해 취임 선서 후 가상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가상 퍼레이드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면서 “퍼레이드는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고, 각계각층의 미국인을 부각하며 새로운 미국의 다양성과 유산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보다 대폭 축소될 참석자 명단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취임식 관람을 위한 여행 자제도 당부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은 역대 당선들과 같다.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부부, 해리스 부부는 군 관계자들과 함께 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준비위 측은 “의장대 사열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오랜 전통”이라며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인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바이든 당선인은 육군 군악대, 합동 의장대 등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역대 당선인들은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중간에 100만명이 가까운 시민과 만나는 성대한 취임 퍼레이드를 했다.

준비위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대통령 당선인이 군중을 모이게 하지 않고 백악관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 전야에는 워싱턴DC 도심의 내셔널 몰에 있는 링컨기념관 리플렉팅 풀(반사의 연못)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중국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지난 2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임시 백신 접종센터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30분 가량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마지막 날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준 가운데 베이징 등에서 지난 1일부터 중점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미스가 “수도권 4개 지역 긴급사태 선포 검토”

도쿄 등 코로나 확산 대응 방침

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스가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하는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에는 총리가 쥐고 있다. 총리가 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역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정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두 번째가 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1차로 유행한 지난해 4~5월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취임한 미스가 총리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포를 꺼리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발령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스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한 상대국의 국내에서 번이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는 즉시 왕래를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